



운 세법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라는 것이다. 미국인들은 경기 부흥이나 세금 인하를 기대하며 새해 연휴를 보냈다.

새로운 세법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공동 재산에 대해 지배적이었던 여론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정치적 정체성과 상관 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새 천년이 시작될 무렵 인터넷 붐이 성행할 때 보다 현재 경제에 더 낙관적이다.

사이버공간에 악의는 없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경제 호황을 누릴 때가 됐다. 그리고 새로운 세금 감면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높은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돌아간 일자리와 투자가 국내로 돌아오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현 실업률이 이미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실업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간단하고 사실적인 통계다. 이와 같은 세금 감면이 성공한다면 지출과 중소기업 투자는 늘어난다. 우리는 모두 미래를 내다보고 있고, 2018년 세금 인하에 힘입어 다시 진전하고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3/13/tax-cuts-already-have-america-moving-again/>